

[제2020-35호]

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, Los Angeles	보 도 자 료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쪽
배포일시	2020.10.5(월)	담당부서	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
연락처	323-936-3025	담당자	노승환

새론 퀴크-실바 가주 하원의원 ‘한글 발전 유공자’로 선정..
대통령 표창 수상



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새론 퀴크실바(Sharon Quirk-Silva) 가주 하원의원을 만나 캘리포니아주 ‘한글날’ 지정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함(사진-새론 퀴크-실바 의원 사무실 제공)

캘리포니아 한글날(Hangul Day) 지정에 앞장서 온 새런 퀴크-실바 가주 하원의원이 574 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.

한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풀러튼, 부에나 파크, 사이프러스, 라 팔마, 스탠튼 그리고 서부 애나하임시등 주 하원 65 지역구의 새런 퀴크-실바의원은 한국의 한글날인 10 월 9 일을 캘리포니아 주 '한글날'로 지정하는 결의안 (ACR 109)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회에 발의하여 하원 및 상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. 이는 해외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별도의 기념일 지정하는 등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고 한류와 한국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.

새런 퀴크-실바 하원의원은 "미국 내에서 K-pop, K-drama, K-food 등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, 현재 Maryland, New York, Virginia 주등에서도 한글날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"며, "우리 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과 함께 타주에서도 한글날 지정 및 한국 문화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"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

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한글 · 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분들에게 '한글 발전 유공자' 포상을 실시해왔다. /끝/